

산업현황 브리핑

이제는 가습기 하나 사도 될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리는 일명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4월부터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 2016년에서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에 대한 처벌 이후 2017년 8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까지 시행되었다. 더불어 한국공기청정협회와 한국설비기술협회는 2016년 1월부터 ‘실내용 가습기 단체표준인증(HH)’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에 이어 살균제 원료 물질과 완제품을 개발·제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두 번째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내용가습기 단체표준인증(HH)이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실내용 가습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내용 가습기기의 중요한 제품 성능에 대해서 실내용 가습기 단체표준(SPS-KARSE B 0050-6335)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를 한 후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제품에게만 부여하는 단체표준 인증마크

※ HH는 Health Humidifier의 줄임말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습기는 냉장고, TV와 더불어 필수 가전이였다. 가전 업체 입장에서는 가습기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가습기가 필요하지만 ‘과연 안전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실내용 가습기 단체표준인증(HH)」 시행 후 가습기 제조업체에서는 더 이상 살균제 피해는 없을 것임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위 명품 가전이라 불리는 고가 가전이 인기를 끌면서 가습기 또한 공기청정 기능까지 겸비한 고가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무선청소기를 시작으로 명품 가전의 대명사가 된 ‘다이슨’의 가습기는 80만원을 상회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지닌 ‘발뮤다’의 가습기는 60만원이 넘는다. 소형가전에 걸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가 가습기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p>〈다이슨 社〉</p>	 <p>〈발뮤다 社〉</p>	 <p>〈미니 가습기〉</p>
--	---	---

한편, 사무실에서 난방기를 강하게 틀면 건조한 공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지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때 가습기를 찾게 되는데 책상 위에 두는 간편한 미니 가습기가 제격이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저가의 미니 가습기는 HH인증을 받은 제품이 드물 수밖에 없으며, 가습기에 대한 안전성이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추운 겨울, 훈훈한 실내에서도 건조하지 않게 지내고 안전성까지 생각한다면 중저가이면서도 최소한 HH인증을 받은 제품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소재기획팀 송승태 과장〉